'뜀박질' 물가 … '제자리' 소득

생활물가 거침없는 고공행진…서민살림 '적자 가계부' 증가 하위 20% 1분기 근로소득 157만원…전년비 9706원 늘어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생활 물 가는 거침없이 치솟고 기름값은 고공(高 空) 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은 줄어 드는 추세가 뚜렷하다. '적자 가계부'를 쓰 는 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 자물가 동향' 자료에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과 비교해도 당근은 20.7%, 무 18.5%, 국산쇠고기 5.9%가 올랐고 섬유 유연제 16.5%, 세탁세제 14.9%, 화장지 는 3.4% 등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맥주와 소주도 전 달에 비해 각각 3.0%, 4.6% 상승했고 김 치찌개와 된장찌개 백반도 3.1%씩 올랐 다. 대표 간식인 치킨값도 한달 새 3.7%나 올랐고 영화관람료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나 인상되면서 외식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머리를 깎거나(미용료 2.4%) 자녀 유치 원비(유치원납입금 3.5%) 등도 올라 살림 살이도 팍팍해졌다.

기름값도 유례없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 피넷'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 국내 주유소 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 *l* 당 평균 14.9원이나 상승한 1605.0원

4월 셋째주 이후 6주째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12월 넷째주 (1620.0원)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1 l당 1589.19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았 던 2016년 3월 7일(1320.37원)과 비교하 면 268.82원(20.36%)이나 올랐다. 경유 평균가격 역시 1389.77원으로 지난 2015 년 1월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갱



물가, 기름값은 계속 뛰는데 실질 소득은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하위 20%(1분위) 근로자 가구의 올해 1분기 근 로소득(156만8126원)은 전년 같은 기간 (155만8420원)보다 9706원이 올라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나마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과 사회보험, 이자비용에 비영리단체로 이전

한 자금 등을 더한 비소비지출은 4만4948 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를 상쇄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지출 증가분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매달 '적자 살림' 을 하는 가구가 늘어날 우려도 높은 형편 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 조사 결 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계가 월 110만6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더블스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의지 확인"

노사, 중국공장 방문 차이용썬 회장 면담

금호타이어 노사가 중국 타이어기업 인 더블스타 중국 공장을 찾아 조속한 경 영정상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회사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더블스 타 중국 칭다오 공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 보고 차이용썬 더블스타 회장과 면담했다.

앞서 차이융썬 회장은 지난 4월 28일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로 인수가 결정 된 뒤 이뤄진 첫 노·사, 광주시.산업은행 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금호타이어 경영진, 노조 대표 등을 중 국 칭다오로 초청했었다.

차이융썬 회장은 노사와의 면담에서 "독립경영 실현 미래위원회를 통한 경영

정상화, 국내 공장 설비투자, 노사 합의 사항 이행 등을 협의하고 결정, 진행하 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블스타 와의 본계약(7월) 전 중국 공장을 둘러 보고 더블스타의 경영, 재무 상황을 꼼 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광주.곡성 공장 독립 경영 및 시너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 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전대진 부사장과 백 훈선 노사협력담당상무, 노조 조삼수 대 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보해양조 "지역 경제·공익사업 협력"

광주지구 JC와 협약…잎새주 등 물품지원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3일 광 주지구청년회의소(이하 광주지구 JC) 와 상호협력 협약식을 열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

보해양조는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지구 JC사무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광주지구 JC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청년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보해양조는 광주지구 JC 후원사로서

잎새주, 순희 막걸리 등 물품지원을 하 게 된다. 광주지구 JC회원들은 보해가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더 많은 나 눔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는 광주지구 JC 공식 후원사로서 JC 회원들의 다양 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 류 등을 지원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 년들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 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힐링캠프'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소기업·소상 공인 사업재기자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 재기에 성공한 소기 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의욕을 고 취하고 재충전을 돕고자 오는 22~23일 과 23~24일 등 1·2차로 나눠 경기도 용

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사업 재기에 성공한 소기업・소상공인 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가 족경영인 경우 가족도 동반 참가할 수 있 다.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 산홈페이지(www.8899.or.kr)에서하 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

효성 지주회사 출범…글로벌 경쟁력 강화 본격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 사내·외 이사진 31명 선임

효성이 회사 분할 이후 첫 이사회를 열 고 사내·외 이사진을 선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

㈜호성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 사와 사업회사 4곳의 사내·외 이사진 31명 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효성은 앞서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 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 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분할한

지주사인 ㈜효성의 대표이사는 조현준 회장과 김규영 사장이 맡고, 조현상 사장 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조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대해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뉴효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사외이사로는 ▲손병두 전 KBS 이사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손영래 전 국 세청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박태호 법 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권오곤 전 대구고법 부장판사 ▲최중경 한국공인 회계사회 회장 등이 선임됐다. 지주사인



효성은 지난 1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4개 사업회사의 사내외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체제 를 출범시켰다. 〈효성 제공〉

리오 구축과 브랜드가치 제고 등에 집중하 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효성티앤씨는 김용섭 전무를 대표이사 로, 이천규 전무를 사내이사로 뽑았다.

사외이사로는 장승철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최병덕 전 사법연수원장, 오병희 전 서울대학교 병원장, 윤의준 서 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4명을 뽑았다.

효성첨단소재는 황정모 대표이사 부사

㈜호성은 출자회사로, 다수익 사업포트폴 장과 김승한 전무를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 했다. 사외이사로는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 장과 한인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 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특 훈교수가 선임됐다.

> 효성중공업은 문섭철 부사장을 대표이 사로, 김동우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사외이사로는 안영률 전 서울서 부지법원장,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부 석좌교수, 신언성 전 감사원 공직감찰

본부장 등이 선임됐다.

최영교 전무를 사내이사로 뽑고 사외이사 로는 편호범 전 감사원 감사위원,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창 재 전 법무부 차관을 선임했다.

효성은 오는 7월 13일 각 신설회사의 상 장을 완료하고, 연내 현물출자 및 유상증 자를 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 짓 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062 673 5858(모발모발)